



16. 이 책 가져갈 테니까 너도 한번 읽어 봐

학습목표 ‘-(으)ㄹ 테니까’를 사용하여 주어의 의지 및 예정을 나타내거나 추측하는 표현을 할 수 있다.
학습내용 -(으)ㄹ 테니까

생각해 봅시다



-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 왜 그 분을 닮고 싶어요?

본문

유리 지나야! 너 혹시 이 책 봤니?

지나 '톤즈 이야기'? 아! 어디서 들어본 거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유리 난 우리 아빠가 아프리카에 출장 가셨을 때 아빠 친구 소개로 톤즈라는 곳에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지나 그래? 아프리카에 있는 마을이구나!

유리 응, 그런데 그곳은 마을에 학교가 없어서 학교도 못 가고 어린 나이에 일을 하거나 군대에 가야 하나 봐.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어도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치료도 못 받고.

지나 어머! 불쌍해라! 그런데, 너희 아빠는 어떻게 거기를 가시게 된 거야?

유리 응, 아빠 친구분이 아프리카 후원회 회원이신데 아빠도 그 단체에 후원을 하고 계셔서 아프리카에 출장 가신 김에 한번 가보시게 되었다.

지나 그러셨구나.

유리 그런데 그곳에서 한국인 신부님을 만나셨는데, 한국에서는 원래 의사 선생님이셨대. 그런데 안정적인 생활도 포기하시고 그곳에 가서서 아픈 사람들도 무료로 치료해 주시고 그곳의 아이들에게 학교와 밴드도 만들어 주셨대.

지나 정말 한국의 슈바이처 같은 분이시구나!

유리 그래. 존경스러운 분이시지? 이 책이 바로 그분의 이야기를 쓴 거야. 내가 내일 학교에 이 책 가져갈 테니까 너도 한번 읽어 봐.

도입 질문

1. 역사 속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2.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3. 왜 그 분을 닮고 싶어요?
4. 그 분을 닮기 위해 어떻게 하고 싶어요?
5. 만약 그 분을 만난다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본문 학습 순서

- 1) 도입 질문을 한다.
- 2) 본문을 듣기 전, 도입 그림을 보고 본문 내용을 유추해 본다.
- 3) 자막을 보지 않고 듣는다.
- 4) 이해 질문 1(포괄적인 내용 파악)을 한다.
- 두 사람은 지금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답: 한국인 신부님)
- 책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썼습니까? (답: 아프리카의 톤즈 마을)
- 5) 질문 4)의 답을 옆두에 두고 다시 듣는다.
- 6) 4)의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해 질문 2(세부적인 내용 파악)을 한다.
- 지나의 아빠는 어떻게 톤즈 마을에 가게 됐습니까? (답: 아빠 친구가 아프리카 후원회 회원인데 아빠도 그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어서 아프리카에 출장 간 김에 가 보게 됐다.)
- 한국인 신부님은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답: 아픈 사람들도 무료로 치료해 주고 그곳의 아이들에게 학교와 밴드도 만들어 주셨다.)
- 7) 새 어휘를 설명한다.
- 8) 한 문장씩 듣고 따라하게 한다.
- 9) 학습자가 본문을 읽는다. (혼자 또는 짝지어)

내용 이해 질문

- (1) 유리의 아버지는 아프리카에 자주 출장을 간다. (O, X)
 답: (O) 유리 아버지는 아프리카에 출장 가신 김에 한번 가보게 되었다.
- (2) 톤즈의 한국인 신부님은 아픈 사람들에게서 의료 비용을 받지 않았다. (O, X)
 답: (O) 한국의 신부님은 아픈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다.

어휘

출장	business trip	마을	town
군대	army	후원회	supporters association
회원	member	신부님	Father, priest
안정적이다	to be stable	포기하다	to give up
슈바이처	Albert Schweitzer	존경스럽다	to be respected

출장: 임시로 다른 곳에 일하러 감

- 이번 출장은 부산으로 5박 6일간 다녀옵니다..
- 무역회사에 다니는 저희 아버지는 해외 출장을 자주 가시는 편이에요.
- 저희 회장님은 지금 중국에 출장 가시고 안 계십니다.

후원 : 뒤에서 도와줌

-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제 후원자가 돼 주셨습니다.

안정적이다: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다.

- 내전 중인 나라의 사람들은 특히 안정적인 생활을 희망합니다.
-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에게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요즘은 대기업에 취직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는 젊은이들이 많다.

10) 상황에 맞게 감정을 실어 읽는다.
 *상황(학습자의 수와 학습 정도, 교실 상황 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포기하다: 하려던 일이나 생각을 중간에 그만두다.

- 무슨 일을 하든지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 국가대표 선수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부모님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그는 가족과의 해외여행을 포기해야 했다.

존경스럽다: 인격이나 행위 등이 훌륭하여 높이고 받들 만한 데가 있다.

- 그 분은 한국 과학자들 사이에서 존경스러운 인물로 꼽힙니다.
- 평생 동안 어렵게 모은 돈을 모두 기부했다니 참 존경스러운 분이네요.
-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문법학습**

-(으)ㄴ 테니까

문장의 앞에 오는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한 조건으로서 말하는 사람의 어떤 행위나 일에 대한 의지 및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책 가져갈 테니까 너도 한번 읽어 봐': 내가 이 책을 가져가면 너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① 제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 ② 내가 운전을 할 테니까 옆에서 길을 좀 안내해 줘.
- ③ 부모님이 기다리실 테니 도착하는 대로 전화를 하세요.
- ④ 어제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테니까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으)ㄴ 테니까'의 후행문에는 주로 다른 사람에게 청유하거나 명령 또는 부탁하는 내용이 온다. 주어가 1인칭 화자일 때는 의지의 의미이고, 3인칭일 때는 화자의 추측을 의미한다. '-(으)ㄴ 테니까'는 주로 구어에서 쓰이며 '까'를 생략하여 '-(으)ㄴ 테니'의 형태로 쓰기도 한다.

문장 만들기

'-(으)ㄴ 테니까'를 사용하여 후행문에 알맞은 선행문 만들기

- (으)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 (으)ㄴ 테니까 일찍 가서 쉬세요.
- (으)ㄴ 테니까 다음 주에 만나는 게 어때요?
- (으)ㄴ 테니까 같이 가지지요.
- (으)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 (으)ㄴ 테니까 연락해 보세요.
- (으)ㄴ 테니까 미리 예매를 합시다.

대화 연습하기

엄마: 지호야, 음식을 너무 많이 차리면 남지 않을까?
지호: 친구들이 많이 올 테니까 괜찮아요.

어머니: 여보,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쓰레기 좀 버려 줘요.
아버지: 알았어. 또 할 일 있으면 얘기해.

엄마: 오늘은 비가 내릴 테니까 우산을 챙겨 가렴.
유리: 네, 엄마. 그런데 제 장화는 못 보셨어요?

지호: 이번에 상대팀 실력이 보통이 아닌 것 같던데 괜찮을까?
민: 그럼, 우리 팀이 이번에도 이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



1. ‘-(으)ㄴ 테니까’는 뒤의 내용에 대한 조건으로 말하는 사람의 어떤 행위나 일에 대한 의지나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주로 뒤에는 명령이나 청유의 의미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 제가 오늘 점심을 살 테니까 같이 가지지요. (청유)
- 10분 후에 돌아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명령)

2. 주어가 1인칭 화자일 때는 의지의 의미이고, 3인칭일 때는 화자의 추측을 의미한다.

- 여기는 제가 지킬 테니까 나가서 일 보고 오세요. (1인칭 - 의지)
- 지호야, 산에 가면 기온이 떨어질 테니까 옷을 더 챙겨 가렴.
(3인칭 - 추측)



1. 빈 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십시오.

출장(을) 갔어요 후원해요 포기하지 존경스러운 안정적인

- 1) 빨리 학교를 졸업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 2)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 보세요.
- 3) 그 분은 인류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해설 : 1) 빨리 학교를 졸업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일자리: job)
2)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 보세요.
3) 그 분은 인류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인류: humankind, 훌륭하다: to be great)

2.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십시오.

<보기>

오늘 비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을 가져가세요.

-> 오늘 비가 올 테니까 우산을 가져가세요.

1) 결혼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거예요. 미리미리 돈을 모아 두는 게 좋을 거예요.

-> 결혼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테니까 미리미리 돈을 모아 두는 게 좋을 거예요.

해설 : 어떤 일에 대한 화자의 추측이 앞에 나오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충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연결하는 부분에 '-(으)ㄹ 테니까'를 사용해서 '결혼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테니까 미리미리 돈을 모아 두는 게 좋을 거예요'라고 말하면 된다.

2) 해외여행을 하려면 돈이 부족할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좋겠어요.

-> 해외여행을 하려면 돈이 부족할 테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좋겠어요.

해설 : 앞 부분에는 해외여행을 하기에 돈이 부족할 거라는 화자의 추측이 나오고, 그 추측을 바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연결 부분에 '-(으)ㄹ 테니까'를 사용해서 '해외여행을 하려면 돈이 부족할 테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좋겠어요'라고 말하면 된다.

1. 어휘 연습

- '출장을 가다', '후원하다', '포기하다', '존경스럽다', '안정적이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 각 단어의 활용형에 주의한다.

2. 문법 연습

- 문법 정보를 다시 확인한다.
- [-(으)ㄹ 테니까]
- 뒤의 내용에 대한 조건
- 말하는 사람의 어떤 행위나 일에 대한 의지나 강한 추측
- 뒤에는 주로 명령이나 청유, 부탁의 내용이 옴
- 학습자가 답항을 보기 전에 스스로 문장을 연결해 보도록 지도한다.

3) 제가 요리를 가르쳐 줄게요. 태권도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 제가 요리를 가르쳐 줄 테니까 태권도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해설 : 앞부분에는 요리를 가르쳐 주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고, 뒷부분에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으)ㄹ 테니까’를 사용해서 ‘제가 요리를 가르쳐 줄 테니까 태권도를 가르쳐 주시겠어요?’라고 말하면 된다.

3.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1) (지나와 엄마가 옷가게에서 옷을 고르고 있다. 지나가 옷 한 벌을 가리키며 묻는다.)

엄마: 날씨가 금방 추워질 테니까 좀 두꺼운 옷을 사는 게 어때?

지나: _____

- ① **엄마 말을 듣고 보니 그렇게 해야겠어요.**
- ② 날씨가 추워지면 옷이 더 필요할 테니까요.
- ③ 얇은 옷이 많아서 안 사도 괜찮을 거 같아요.

해설 : 엄마가 날씨가 추워질 거라고 추측한 것을 바탕으로 지나에게 두꺼운 옷을 살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①은 그런 엄마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적당하다. ②는 날씨가 추워질 것이므로 두꺼운 옷을 사는 게 좋겠다는 엄마의 제안에 대해서 날씨가 추워지면 옷이 더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므로 적절하지 못한 대답이다. ③은 두꺼운 옷이 아니라 얇은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한 대답이다.

2) (유리와 지나가 교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리: 주말이라서 영화 보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미리 표를 예매하자.

지나: _____

- ① **그래, 그럼 내가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볼게.**
- ② 그래, 이번 주말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아.
- ③ 그래, 그럼 영화 보지 말고 공원에 놀러 갈까?

해설 : 주말이라서 사람이 많을 것이므로 표를 예매하자는 유리의 제안에 제일 적절한 대답은 인터넷으로 알아보겠다고 하는 ①번 대답이다. ②는 예매하는 것과는 상관 없이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으므로 부적절하고 ③은 갑자기 영화 보는 대신 공원에 가자는 제안을 했으므로 어울리지 않는다.

3) (엄마와 지나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엄마: 지호한테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

지나: _____

- ① 오빠 친구들이 많이 올 테니까 조금 많아도 괜찮아요.
- ② **선물은 제가 살 테니까 엄마는 케이크를 준비하실래요?**
- ③ 오빠는 내일 바쁠 테니까 우리만 다녀오는 게 어때요?

해설 : 무슨 선물을 사면 좋을지 묻는 엄마의 질문에 ②번 대답이 가장 적절하다. ①과 ③은 모두 생일 선물과 관련이 없는 대답이다.

3. 대화 연습

•자연스러운 담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연습이다.

•정답 이외의 질문을 학습자가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한다.

예)

A. 주말이라서 영화 보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미리 표를 예매하자.

B. 그래, 그럼 내가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볼게.

B'. 그래, 미안한데 나 오늘 좀 바쁘니까 네가 좀 알아봐 줄래?

과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조언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조언을 주거나 받은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때의 경험을 써 봅시다. 단, 아래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접 경험한 일을 써야 한다.
- '-(으)ㄹ 테니까'를 사용해야 한다.
- 문어체(' -다, ㄴ/는다')로 써야 한다.
- 400~600자 정도로 써야 한다.

예시답변

한국에서 고등학생들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해 보게 됐다. 그때 나의 가장 큰 고민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의사가 될 것인지 내가 좋아하는 자연과학을 선택할 것인지였다. 그때 나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께 조언을 구했다. 선생님께서는 앞으로는 항공우주 산업이 유망할 테니까 그쪽으로 진학하라고 하셨다.

도입 질문

- 과거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을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본다.
- 무슨 고민이 있었는가?
- 그때 기분이 어땠는가?
-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얻은 적이 있는가?
-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조언을 해 준 적이 있는가?

작문 지도

- 지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직접 경험한 일, 문형, 문체, 길이)
- 글의 구성이 짜임새 있어야 한다. (처음-중간-끝)
- 단락이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
- 학습 수준에 맞는 문형과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함께 풀어봅시다

1. 다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1) 지나 : 우리 여행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리 : 내가 기차표를 _____ 너는 숙소를 알아볼래?

2) 지호 : 내가 발표를 잘 할 수 있을까?

민 : 그럼, _____ 걱정하지 마.

2. 다음 [가]와 [나]를 ‘-(으)ㄴ 테니까’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연결하십시오.

[가]	[나]
주말이라서 길이 막힐 것이다.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배낭여행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이다.	일찍 집에 가서 쉬세요.
비가 올 것이다.	지하철을 타고 오세요.
피곤할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좋겠어요.

1) _____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2) _____ 일찍 집에 가서 쉬세요.

3) _____ 지하철을 타고 오세요.

4) _____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좋겠어요.



함께 풀어봅시다 (답안지)

1. 다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1) 지나: 우리 여행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리: 내가 기차표를 예매할 테니까 / 살 테니까 너는 숙소를 알아볼래?

2) 지호: 내가 발표를 잘 할 수 있을까?

민: 그럼, 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2. 다음 [가]와 [나]를 ‘-(으)ㄴ 테니까’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연결하십시오.

[가]	[나]
주말이라서 길이 막힐 것이다.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배낭여행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이다.	일찍 집에 가서 쉬세요.
비가 올 것이다.	지하철을 타고 오세요.
피곤할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좋겠어요.

1) 비가 올 테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2) 피곤할 테니까 일찍 집에 가서 쉬세요.

3) 주말이라서 길이 막힐 테니까 지하철을 타고 오세요.

4) 배낭여행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테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좋겠어요.